VOICEYE
KOR
voiceye.com

손으로 보는 세상

2015 August
vol. 181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CONTENTS

02

03
점자로 말해요
사진

04
테마기획
시각장애인의 영상 정보 접근권,
화면해설 방송이 책임집니다!

06
인터뷰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글을 씁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쓰는 작가,
소재원님

08
정보 PLUS
시각장애의 원인
: 미숙아망막증
월드 리포트
: 나와 똑같은 장애를 가진 인형
'토이라이크미'

09
함께 사는 이야기
컴퓨터를 말하다
정은주(시각1급_광주광역시 북구)

10
포커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갤러리, '북성동'이 인천
차이나타운에 문을 열었습니다!

11
뉴스앨범
1. 2015년도 전국심화재활교육이
열렸습니다!
2. 스킨스쿠버로 강원도 고성의
바다를 느끼다!

12
안내
전시회나 공연장,
극장에 갈 때
후원안내

손으로보는세상 2015년 8월 181호
발행일 2015년 8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www.graphicocean.co.kr 캘리 임캘리 www.imcalli.com

VOICEYE
voiceye.com

찰칵! 찰칵! 셔터를 누르는 소리는 찡그린 얼굴도 미소 짓게 합니다.
소중한 친구,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사진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사진

읽기형 ①④ ②⑤ ③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	것		ㅆ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줄임표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엉'으로 바뀐다.

시각장애인의 영상 정보 접근권,

화면해설 방송이 책임집니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상물이라는 점인데요.
시각장애인은 이와 같은 영상물을
어떻게 시청하고 있을까요?

1. 화면해설 영상자료를 제작하는 모습

2. 화면해설 서비스를 위한 작업실 / 3. 화면해설로 제작된 영화
4. 올 12월 배포 예정인 '로봇트레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영상 정보 접근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면해설서비스는 TV방송뿐만 아니라 영화, 뮤지컬, 그림동화,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데요. 화면해설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이 영상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한 음성 해설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각화된 콘텐츠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이 사회 ·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의 화면해설은 TV방송이나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화면해설영상물 제작에만 국한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장르의 확대와 방향성을 모색한 결과 현재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도 화면해설서비스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해설서비스는 약 36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화면해설방송 작가에 의해 제작이 되는데요. 교육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부터 문장 강화, 화면해설 기법 실기까지 화면해설방송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은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화면해설 자료인 최초의 아동 TV시리즈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로봇트레인'이 선을 보일 예정인데요. '로봇트레인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들이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시각장애 아동들이 용기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로봇트레인'은 올 12월부터 전국의 시각장애 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20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많은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화면해설 콘텐츠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더해 점차 확대될 전망인데요. 화면해설서비스가 시각장애인에게 원활한 정보습득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다주고, 비장애인과의 유대감 형성 및 사회 적응에 힘을 더할 수 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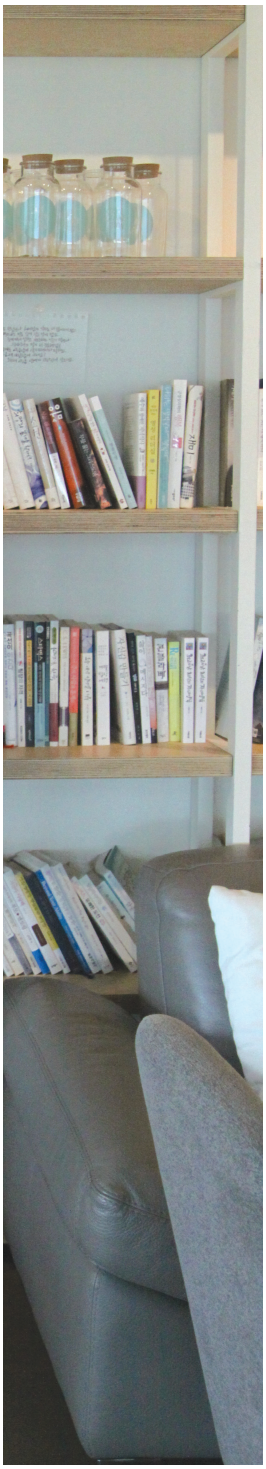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글을 씁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쓰는 작가, 소재원님

우리 사회의 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내기
쉬운 사건들을 소재로 글을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영화 '비스티보이즈'의 원작 '나는 텐프로였다',
영화 '소원'의 원작이자 아동성폭행 문제를 다룬 '소원',
미디어에 흔들리는 대중의 비판적인 모습을
표현한 '터널' 등 다양한 작품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소재원 작가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릴 때 제가 쓴 글을 보고 할머니께서는 항상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시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 쓰는데 남들에 비해 재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 처음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집을 떠나셨는데 그 때는 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유명한 작가가 되서 날 떠난 어머니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년 전, 모 TV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와 재회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를 만나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많이 놀랐죠. 어머니가 오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를 막상 만나니 제가 이전에 가졌던 원망이나 증오하는 마음이 들진 않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가졌던 어머니에 대한 증오나 원망도 그리움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집을 떠나신 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당시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셨던 것이 기억나네요.

작가님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10편이 넘는 작품을 출간하셨는데요. 집필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사실 지속적으로 집필을 하면서도 항상 슬럼프는 있었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백기가 있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품을 출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동안 조금씩이나마 쌓아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품을 출간하다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작품이 저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작가 생활을 이어가던 중 갑작스러운 시각장애와 부딪히게 되셨는데, 그 때 가장 힘이 되었던 분은 누구일까요?

아버지가 가장 힘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로 방황하던 때 아버지께서 앞으로 어떻게 글을 쓰면 될지 일러주시기도 하시고 장애로 인해 글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글은 어떻게 쓰시나요?

글자를 뚜렷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눈을 감고 집필하는 것이 편해요. 또 글을 쓰면서 오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익숙한 브랜드의 컴퓨터와 키보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어나 문장, 오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검토해주시기도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지난 5월에 혼인신고를 마치셨고, 내년 2월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어요. 작품으로 번 돈을 모두 날려 통장에는 4천 3백 원 뿐이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은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며 이 사람이라면 제 불행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도 친아들처럼 생각해주셔서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가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 아기 태명이 소명이인데요. 지금 당장은 임신중인 아내와 소명이가 건강한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또 올 10월에는 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터널'이 크랭크인에 들어가고, 한 작품이 발표될 예정이라 조금 바빠질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쓴 글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가정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의 원인
미숙아망막증

미숙아망막증은 혈관이 미처 성숙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형성된 망막에 비정상적으로 신생 혈관이 형성됨으로써 실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질환입니다. 미숙아망막증은 전 세계적으로 소아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태어난 미숙아는 모체 내에서 발육해야 할 망막 혈관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미숙아는 보육기에 들어가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받게 되고 혈중의 산소 농도는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망막 혈관에 신생 혈관이 생기는 등의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실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산소 농도를 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숙아망막증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현재 미숙아망막증의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망막증의 발생 및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미숙아의 미숙 정도와 체중, 재태연령 및 산소 투여의 농도, 투여 기간, 무호흡증, 심혈관계 결손, 수혈, 뇌출혈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드 리포트
나와 똑같은 장애를 가진 인형 '토이라이크미'

영국에서 시작된 한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 캠페인은 장애 아동에게 그들과 똑같은 장애를 가진 인형을 만들어 주는 '토이라이크미'인데요. 이 캠페인은 청각장애를 가진 프리랜서 작가 레베카 앳킨슨,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카렌 뉴웰, 마비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청각장애 작가 멜리사 모스틴 등 영국 여성 3명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이라이크미'는 장애 아동들은 자신과 같은 모습의 인형을 통해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비장애인 아동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캠페인은 시작 후 빠른 속도로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 소식을 접한 장난감 회사 '아클루(Arklu)'와 '메이키즈(Makies)'가 장애 인형을 판매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캠페인 '토이라이크미'의 다양한 활동과 소식은 트위터(Twitter.com/toylikeme)와 페이스북(Facebook.com/toylikeme)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야기

09

컴퓨터를 말하다

정은주(시각1급_광주광역시 북구)

어김없이 하루의 시작인 아침이 찾아왔다. 나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에 관한 기사도 보고 우리집 강아지에게 먹일 사료에 대한 가격비교도 해본다.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다. 하지만 나는 빛을 간신히 감지할 수 있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내가 지닌 그러한 장애와 세상의 거리를 좁혀주고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이름도 위대한 '컴퓨터'이다.

내가 맨 처음 컴퓨터라는 기계를 접한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와 같이 시각장애인인 우리 언니와 내가 하루라도 빨리 그토록 놀라운 기술의 진보를 경험하게 하려고 부모님께서 장만해 주신 것이었다. 'Dos'라는 컴퓨터 운영체제가 사용되고, 시각장애인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 '가라사대' 라는 음성 프로그램이 개발에 성공한 시기였다. 본체 위에 위치한 동그란 모양의 스위치를 누르면 '윙'하는 기계음 소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낮고 무감정한 '가라사대' 프로그램이 모니터에 출력되는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주며 보이지 않는 나와 언니를 게임의 세계로, 독서의 세계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의 세계로 안내해 주었다. 가히 신세계라 이름 붙일 만큼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발명품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가라사대'가 또박또박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며 동심을 키워갈 수 있었고, 언니는 PC 통신을 통하여 또래 친구들과 채팅을 하며 평범한 사춘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이제 '가라사대' 음성 프로그램은 눈부신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의 뇌리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내 유년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라사대' 특유의 낮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귓가에 선하다. 작가 조창인 선생님께서 쓰신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한창 베스트셀러로 각광받던 때 나 역시 그 소설을 매우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난다. 물론 그때에도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가라사대'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억양변화가 전혀 없는 '가라사대'의 딱딱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책 내용을 듣다 보니 그 어떤 이가 읽어주는 것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져오는 듯했다. 실제로 책의 클라이맥스 대목에서는 베갯잇이 흠뻑 젖도록 울기까지 했으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컴퓨터 기술의 발전도 빠르게 이루어져 갔다. Dos 운영체제를 대신할 Windows가 등장하였고, '가라사대'를 대신할 음성 스크린리더인 드림보이스, 이브, 센스리더 등이 차례로 개발되었다. 최신기술이 순식간에 다른 최신기술로 대체되며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삶도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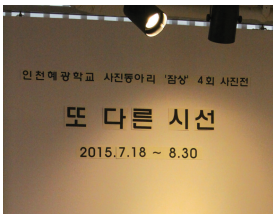
우리가 사용하던 교과서 및 참고서들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두 부피가 큰 점자책으로 출력을 해서 공부하였다. 등하굣길에는 책가방이 늘 터질듯 빵빵했다. 그러나 컴퓨터 음성 스크린리더가 발전을 거듭하고 그에 맞는 텍스트 도서들이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두꺼운 점자책은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컴퓨터는 보다 슬림해졌고 스마트하고 스피드한 삶을 가능케 해주었다. 컴퓨터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못할 만큼 이미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엇으로 자리하고 있나 보다. 빠르게 변화해 가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도 모두 다 컴퓨터 덕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환경을 연구하고, 음성 스크린리더를 개발하고, 온라인 강의를 해 주시는 많은 분의 노고가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웹상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되고 있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감사할 일이다.

컴퓨터는 실로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창이다. 키보드 위에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손가락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이 세계를 노크하고 온 신경을 귀에 집중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를 내 안에 담으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튼튼한 열 손가락과 예민한 귀, 그리고 내 보물 1호인 컴퓨터만 있어 준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확신한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갤러리,

'북성동'이 인천 차이나타운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갤러리,
'북성동'이 인천 차이나타운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진은 눈으로 보는 세상을 담는 것' 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사진가들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찍은 사진만을 전시하는 공간, '북성동'이 인천 차이나타운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갤러리 '북성동'은 인천 차이나타운의 삼국지벽화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바다를 닮은 파란색과 순수함을 연상시키는 하얀색의 인테리어가 마치 산토리니에 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갤러리 '북성동'은 인천 혜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상봉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지난 7월 18일 개관되었습니다. 현재 '북성동'에서는 첫 번째 전시로 인천 혜광학교 사진 동아리 '잠상' 회원들의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상' 회원들은 전문적인 사진 작가들도 놀랄만한 감성의 작품을 탄생시켰는데요. 자연, 친구, 거리 등 다양한 주제로 세상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상' 회원들의 사진은 손으로 느끼고 귀로 들은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 표현하였으며, 일상적인 풍경에 자신만의 의미를 더해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이상봉 선생님께서는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사진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고 즐거움을 찾는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시각장애인의 사진 작품을 전시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전시는 8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전시는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산토리니를 닮은 갤러리 '북성동'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사진을 감상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KOR VOICEYE
voiceye.com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01. 2015년도 전국심화재활교육이 열렸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충주에 위치한 켄싱턴 리조트에서 2015년도 전국심화재활교육이 개최되었습니다. 1박 2일로 구성된 이번 전국심화재활교육은 전국 지부 및 지회에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교육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련된 정보 및 시각장애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시각장애 복지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전국심화재활교육을 통해 전국 지부 및 지회 지도자들은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상호 협력의 장이 이루어진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02. 스킨스쿠버로 강원도 고성의 바다를 느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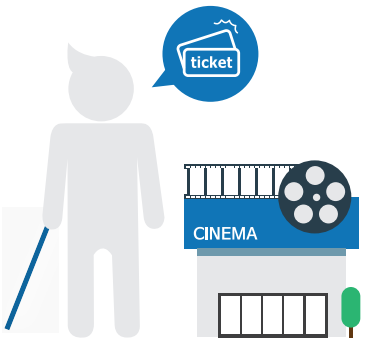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에서는 7월 23일과 24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의 바다를 탐험하는 스킨스쿠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는 총 17명으로 시각장애인 11명과 직원 6명이 체험에 참여하였는데요. 이번 활동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중 대부분이 스킨스쿠버에 처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참가자 중 한 분은 공기통을 메고 호흡하며 바다 속에서 체험한 것들이 꿈에서도 생생히 기억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즐거워하셨는데요. 심해 깊은 곳의 자연을 느끼고 오신 17분에게 좋은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VOICEYE
voiceye.com

전시회나 공연장, 극장에 갈 때

시각장애인은 영화나 스포츠 관람, 전시회, 공연 보기 등과는 아주 거리가 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관람하는 안내자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시각장애인도 비시각장애인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든지 볼거리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전시회장이나 공연장은 공연물에 따라 매우 어두운 환경이거나 많은 소리가 겹쳐져 청각 의존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평소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파 속에 부딪히지 않게 안내하는 사람보다 반 보 정도 뒤쪽에서 걷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시회에 갔을 경우는 전시회 공간을 함께 천천히 둘러보며, 작품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히 촉각을 활용한 전시회라면 전시물 하나하나마다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돕습니다. 공연장에 갔을 때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 배경이나 주변 상황을 미리 설명해 주시면 공연을 즐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 · 중 · 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 · 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www.kbuwel.or.kr